한의대 각종 실험기재 갖춰

V.O.U.도 콘솔 세트등 구입예정

한의대에 이번 학기중으로 1억원 상당의 교육용기기가 도입된다.

총무과에 따르면 이번학기까지 각종 실험기재 9종을 들여오기로 하고 이미확보된 1억여여원의기재구매자금으로국내외 9종의 교육기기를도입하기로했다. 이번에도입예정인기재중에는 한약검사기기인 「H·P·L·C」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험기기가 도입됨에 따라 약물의 혈중농도 측정은 물론 복잡한 합성분의 데이타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게되며 타대학의 실험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게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V.O.U에도 효율적방송을 위해 1천5백만원 상당의 오디오 콘솔세트와 5백5십만원 상당의 턴 테이블 2대가 도입된다. 수원캠퍼스 V.O.U.에서도 5월달에 2부스를 공식 개원 예정이다.

고황 의학상 제정
의료원, 근무의욕 고취

본교 의료원은 의료원내외의 학분야 종사자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질적수준을 향상키 위해 고황 의학상을 제정했다.

의료원내 상하 3개병원(의학, 치의학, 한의학)에 각각 주어지는 이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눠지며 각 분야의 대상에서의학부문은 6명, 치의학·한의학부문은 2명을 초과할수없다. 한편 의료원내 교원의 해외유학및 연수에 필요한 보조금도 장기(1년미만)와 단기(3개월미만)로 구분, 지급하는데 이는 소장교수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내 공중전화 외대 현관앞에 설치

외국어대학관 현관앞에 수원시내 공중전화 1대가설치된다.

사무처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자수 조사등 공중전화설치에 따른 제반 상황조사 때문에 설치가 늦어져왔으나 이 상황조사가 끝남에따라 공중전화박스가 완성되는 금주중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원시 공중전화는 이공교육관과 애지원에 각각 1대씩 있던것을 포함 모두 3대로 늘어났다.

하계 봉사활동 7월21일부터

기술봉사 9개반등 총34개반

하계방학동안 실시될 봉사활동의 내역이 밝혀졌다.

학생처에 따르면 오는 7월21일부터 8월16일까지 실시될 이번 하계봉사에는 기술봉사 9개반등 총34개반에 총 1천4백70명이 참가하게 된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의료봉사는 전남 완도등지에 25개반 9백32명, 기술봉사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등지에 9개반 5백38명등이다.

이번 하계봉사의 소요경비로는 학생부담 3천8백21만5천외에 국고보조금및 학교지원비가 지급 된다.

정문 건립 필요성에 대다수 찬성

수원,교문 건립 설문조사 보고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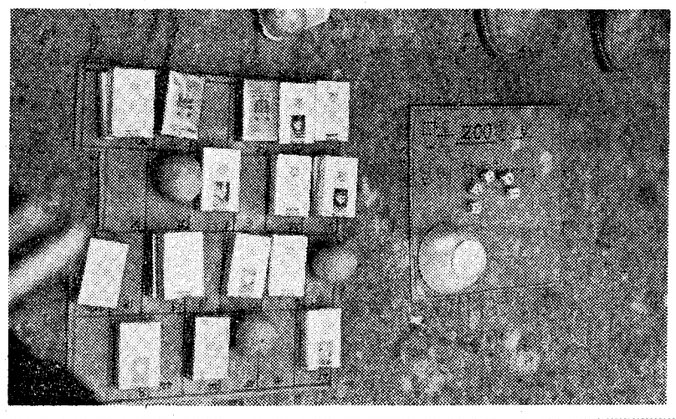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공대학생회가 「교문건립추진을 위한 설문지조사결과 보고서」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조사보고서는 공대학생회가 지난8일 6개단대 2백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16일 3백부를 배포한데 이어 오늘 4백부를 더 배포한다.

설문조사보고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문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94.8%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교문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문의 형태에 관해서는 수원캠퍼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있는 추상형의 현대식건물(38.4%)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건립장소에관한 질문중 조감도에 따른 건립안에 응답한 학생은 6.6%로, 수원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이 학생들사이에서 신임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문건립추진에 관해 양병택부총장은 『마스터플랜상의 정문은 신갈호수 옆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단시일내에 완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 현재의 버스승차장에 후문을 먼저 세울계획』이라고 밝혔다.



슬프기만한 知性

奧眼

축제기간중 봉수대 앞에벌어진 진 풍경이다. 예년과 다름없이 세일만 난무하던 축제기간중 그것도 모자라 야바위꾼(?)을 농가하는 상술까지 곁들였다. 공짜 좋아하는 심리가 다반사라고는 하지만 단돈 2백원에 사고 팔리는 지성이 슬프기만 하다. 양심을 외면하는 철면피(?)가 아니라면 젊은 고뇌의 몸부림만으로도 우리의 현실은 숨이 가쁘기 때문이다. 자숙의 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안미자記者>

취재노트

모든 게 다 나으리 德이 부족함이시니…

◇…최루탄 始香(?)대회

5·16, 5·17과 때를 같이한 축제기간 동안 등용문 앞에서는 연일 최루탄 始香대회가 열렸다고. 한 獅형 고즈너기 눈을 감고 감정하여 가로대, 「빵」=맛 좋은(?) 사과탄이고, 「펑펑」=눈물 콧물 짜는 최루탄, 「부웅」=앞 못보는 페퍼포그, 「쾅쾅쾅…짜앙」=앗! 지랄.

◇…외제=외채

축제=세일이란 등식은 올해도 완전 성립되었다는데. 각과의 특성을 감안한 바자회 정도야 있을 법도 하다지만, 서천리 고을 某단대에서는 버젓이 아식스 가방을 할인판매하고있었으니—외제불매서명운동은 벌써 옛말이되었는지, 외제=외채란 사실을 잊지맙시다요.

◇…유리창에 그림을

17일 서천리에서 광주항쟁을 기념하며 시위하던날, 짬새아저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자리를 한층 빛내주었다는데. 도가 지나쳐 기숙사인 애지원에까지 최루탄을쏴 유리창이 깨지고 방안에서 최루탄이 터졌다고.

이를 본 한 獅형 가라사대 『앞으로 모든 유리창엔 某某某를 그려넣자』 고한마디.

◇…우리는 죽어도

과연 한이 맺히면 죽어서도 눈을 못감는 모양. 사실 인즉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죽일놈의스키 항공기가 싹사라져 버렸다고. 아마 죽어서 떠도는 KAL기 영혼들의억울함이크게작용한모양인데.

때는 5월이라 높으신 나으리들, 이 일을 他山之石으로 삼으심이 어떠신지….

◇…최루탄이 빗발쳐도 우리는 마셔야 한다.

지난 16일 시위가 한창일 때 교시탑 부근에서 벌어진 진풍경. 앞뒤로 ×새들의 최루탄·지랄탄이 쏟아져도, 싸우다 부상당한 학우들이 앞으로 옆으로 지나도 「우리는 마셔야만 한다」는 숙명적 의무인지 축세를 초월한 몇 獅형들. 술도좋고풍류도좋다지만 신선놀음에 썩은 도끼자루 옆에 차고 있는 병든 사자이기는 바라지 않겠죠.

◇…獅형? 犬형?

이번 목련축전 기간동안 시골장터를 연상케하는 술집들이 들어서 시끌시끌 신바람들 났는데. 얼큰히 취한 몇몇 獅형들, 캠퍼스 아무데나 방뇨를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눈살을 지푸리게했다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는좋으나 지성인을 자처하는 분들이네발짐승을못벗어나서야최루탄가스어찌이길런지.

◇…짐의 不德이…

오일육, 오일칠, 오일팔등 오일트리오가 전국의 상아탑을 순회공연하면서 낸 히트곡이 대성황을 이루자 일격을당한 某某某가수가 장안의 ×새를 모두사들여 재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인데. 덕분에 그의 측근들은 불철주야 비상근무까지 감내해야 된다고. 이말들은 한 獅형의 말이 매우 교훈, 고무, 철학적인데 말인즉 『다 나으리에게 덕이 없음이야』 라나.

◇…불러도 불러도 님은

서천리 축제마당에 마련된 「전경과의 대화」를 위해 獅형들이 용인경찰서까지 친히 찾아갔지만 결과는 NO NO 껌만 씹고 말았다고 하니, 현안문제를 놓고 진실된 대화를 가져보자는 獅형들의 제의, 외부의 반응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거절만을계속. 한獅형 曰 『개들은 부를때는 안오고 필요없을 때만 온단 말이야』 며 불러도 오지않는 님을 두고 일침.

◇…개교기념일을 맞아

처음으로 시작하여 36번째의 고개를 맞는 순간. 하나하나 마다 의미가 깊겠지만 이제는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때. 대학이 암흑에싸여 있고 사회에는 민주화가 절실한 이때 우리 獅형들 손에 손을 맞잡고 「단결하세」를 목놓아 외쳐야할때. 또다른 발전을위하여 「전진하세」를 힘모아 불러야 할때. 이제 경희는 우리의 손으로 진정한 이땅의 민주화를 우리의 힘으로 할때 경희 36주년을 맞아 처음이란 기분으로 노력해야 할때.

계속되는 학생 연행을 보고

" " " " " " " " " "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 한다. 물론 당연히 생존을 위한 욕구라 하겠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5월은 잔인한 달이라 한다. 5.16, 5.17, 5.18로 이어지는 역사적사건이 점철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많은이슈가 제기되는 달이다. 그에 따라 정부측의 예상으로는 5월이 소위 학생데모의 피크가 되는 모양이다. 5월초 모일간지에 따르면 데모진압용 사과탄·최루탄의 각 경찰서 비축량을 2배로 늘렸다 한다. 요즈음 들어 무제한 물량공세를 펼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인 모양이다.

그것은 그런대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다. 가장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이보다 더 웃지못할 사실은 헌법에도 있지 않는 예비검속이라던가 뭐라하는 것이 그것이다.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 사회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잡은 「운동권 학생 일시 연행조사중」의 기사는 차라리 웃음을 머금게 하는 유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마당바위

이 헌 건
<영문·2>

국민학교 교과과정에도 분명히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중에 신체의 자유가 포함되고 있다.

헌법이 한 국가의 기본법이라면 그것이 무너질때 이미 그 국가는 스스로 국가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동권 학생을 불법연행해 가는 명목이 또한 재미있다. 그 이유는 5·17을 전후해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시위를 주동할 만한 학생들을 미리 잡아 사전에 시위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싶진않다. 그것은 귀있고 눈있는 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정책 입안자들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릇된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더우기 그것이 기본적 헌법조항을 무시하고 있음에야 무슨말이 더 필요 하겠는가?

우리역사나 중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때에도 정치를 잘하고 칭송을 받았던 왕들은 모두가 다 신하의 충언을 귀기울여 들을 줄 알았으며 힘으로써가 아니라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다. 강한 힘을 휘둘렀던 왕이란 모두가 뒤에 구린것이 있거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허욕을 채운 자들뿐이지 않았던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못할 경우 올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거슬림을 이겨야만 올바른 행위로 돌아갈 수 있다. 왜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가.

왜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바른말 하는 이들을 억압하려 하는가? 슬픈 일이다.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위헌행위가 떳떳이 신문지상에 정부의 입장으로 등장을 하다니 통곡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비검속으로 들어가 있는 운동권(?)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5月17日에 우리에게 하고자 했는지 알 만큼은 안다. 싸고싼 사향도 결국은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걸치레 자율화속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서적압수와 불법연행은 모두 같은 맥락이라 보인다.

다시 우리의 제목을 떠올리자. 인간행위의기본욕구는생존이다. 이 기본적인 생존욕구조차 자유와는 교환될수 없다. 그러기에 어떤 독재국도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굶기는 것도 잘못이다. 흑사시키는 것도 잘못이다. 빼앗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나 보다 큰 잘못은 항의하고 맞설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못먹고 혹사당하고 빼앗김도 억울하지만 그 상황에 대항할수 없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예비검속은 명백히 인간자유의 억압으로써 이 땅에서사라져야한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덧붙이고자한다. 인간의급수가나눠질수 있는가? 모든인간이평등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예비검속은 이 진리도 외면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위에다가 인간을 A급 B급으로 분류하여 사물화 시켜 버리는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기를 원하고 타인과 평등한 존재이기를 요구한다. 그 무엇도 우리의 이 욕구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모순을 축적시킴으로써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슬픈 마음으로 「신동근」 학형의 이름을 읽는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생존욕구와도 교환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도 억압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현 체제에 대항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가….

학원소식

이동신교수 23일 도미

교수동정

▲이동신 (신문방송과) 교수=오는 23일 부터 27일까지 학위논문발표를 위해 도미.

▲이재현(의학과)교수=지난17일 「국제임신중독회의」의 참석위해 渡日.

알림란은 여러분의 난입니다

알림

【서울캠퍼스】

▲고황 30호 편집위원 모집 시험=오늘 오후5시 학생회관 4층 고황편집실에서 본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상식, 논문, 면접을 치른다. ▲회계학회지 원고모집=시, 수필, 소설, 꽁트, 논문등을 회계과 학생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공인회계사반 입실시험=오는 21일 오후 12시 정경대 209강의실에서 회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과목은 영어이다. ▲본관도서관 이용시간=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방하며 시험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이용가능하다▲MDOP 제12회 정기연주회=오늘 오후 6시30분 크라운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지휘는 김동원, 피아노는 김주연▲제7회 임서전=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학생회관 3층에서 서도회 주최로 열린다. ▲경영대학원 원우회 85년도 전기세미나=오는 25, 26일 속리산에서열리며 출발은25일오후5시 30분등용문에서. 회비는1만원

동문회 및 서클모임

교모임

【서울캠퍼스】

▲경주향우회MT=오는 25, 26일 대성리▲합양향우회=21일 오후 5시 녹원▲원불교 임시총회=21일 오후 5시 30분 학생회관 여학생 휴계실▲진주고동문회=21일오후 6시 호수회관▲여의도고동문회=21일 오후 5시30분 녹원▲광성고동문회=24일 오후 5시 녹원▲인하고동문회=오는 24일 오후 5시 공대앞 돌다방▲경인지구 금오동문 체육대회=오는 27일 오전 9시 성균관대 운동장▲경인지구 토목공학과 체육대회=오는 26일 오전 9시 인하대 운동장

【수원캠퍼스】▲영동·진선동문회=오는21일오후5시30분 외국어교육관 121호실 ▲순천동문회=오는 21일 오후12시30분 이공교육관 휴계실 ▲용산동문회=오는 23일 오후5시30분 이공교육관 휴계실.

극단「맥토」정기공연

교양강좌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 특강=오는 21일 오후 1시 고려대 강당에서 장을병(성균관대) 교수와 송건호 (前 언론인) 의 「한국언론의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이 있다. ▲상명 극예술연구회 제12회 정기공연=오는 23, 24일 오후 7시, 25일 오후 2시, 5시 상명여대 소극장에서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루이기 피란델로作) 을 공연한다. ▲극단 「맥토」 제44회 정기공연=오는 21일부터 6월4일까지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 (단 21일 오후4시30분 공연은 없음) 에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존·오스본作)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판화가 이영애씨 발표전=이영애씨의 첫 발표전이 22일 부터 28일 까지 윤갤러리에서 열린다. 꽃, 잎사귀 등 일상의 주제들을 환상적으로 재구성한 「드림 (꿈)」 시리즈 발표. ▲이강호씨 도예전=동주 이강호씨의 도예전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백악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박옥미씨 염색작품전=박옥미씨의 염색 작품전이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불란서 문화원에서 열린다. ▲극단 「춘추」 공연=극단 「춘추」는 「나비처럼 자유롭게」를 오는 6월13일까지 엘칸토 예술극장 무대에 올린다. 레오너드·거시作, 구중서역, 문고헌연출. ▲극단 「우리네땅」 공연=극단 우리네땅은 오는 24일까지 오후4시30분, 7시30분 하루 2차례 공연한다. 공간사랑 (비원옆) 에서 막을 올리는 이번 연극은 박우춘作 김봉열연출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제5회 한국사학술회의=23일 오전10시 무역회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제는 「고고학을 통해 본 고대 한일관계사」이다.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2차 학술세미나=24일 오후3시 한양대 학생회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한국의 전통과학과 과학사상」이다. ▲숙명여대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강연회=同연구소 창립 1백주년 기념으로 22일 오후3시 음대 숙연당서.

분실자 본사편집실로

습득

【서울캠퍼스】

◇학생증=조혜전(기악·3)▲이상민(한의예·1) ◇도서대출증=김인범(한의본·2) ▲김영욱 (국문·3) ▲박경원 (전자공·4) ▲배찬호(화학공·1) ◇학생수첩=홍순달(기악·1) ▲김성기 (의예·1) ▲한기순 (호전회계·2) ◇주민등록증=▲이대열▲정갑용▲조민희▲한기순 ◇장고=지난 16일 녹원에서 습득 ◇책과 녹음테잎이 들어있는 자주색가방=도서관에서 습득 ◇제일은행 크래디트카드=송숙경, 지난 15일 잘살기탑 근처에서 습득.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분실

【서울캠퍼스】

◇학생증이 들어있는 자주색 학생가방분실=양재형 (신방·1) ◇주민등록증, 3만원짜리 우편환증서 분실=나상희(무역·1) ◇주민등록증, 학생증이 들어있는 자주색 수첩분실=구지현(의상·1)

등기물 총무과로

등기

【서울캠퍼스】

▲박남규 (물리·4) ▲배혜옥 (국윤·4) ▲김상광 (국윤·3) ▲이상희 (국문·2)▲정주석 (행정·1)▲김기영 (법률·2) ▲강동명 (무역·2) ▲주승민(경제·2)▲박형준 (경영·4) ▲김규식 (영교·4) ▲박현용(의본·3)▲김광배 (의본·1) ▲한상표(한의예·2) ▲김종응 (기계공·4) ▲이인근(건축공·4) ▲유운선 (임학·3) ▲강태봉 (식품공·3) ▲김미경(성악·3)▲장은태 (성악·1)

【수원캠퍼스】▲유동현(서반·2)▲오상건 (건축·2)▲이진철 (전자·1)▲이중호 (건축·2) ▲정대영(회계·2)▲이용석(체육·1) ▲나일환(태권도) ▲최영우(태권도·2)▲박영달(애지원·408)▲심원섭 (애지원·303)

柳津 監修
酒井善孝 編著
宋丞鎬 譯著
傾博 大學院 大編入 留學 高考 就職 試

英文法演習 1 2 0 0 題 390page 4,000원
英文解釋演習 1 2 0 0 題 700page 6,000원

本書의 內容
SIX PART
영문국역 내용파악·선택문제 완성문제 어휘문제 종합문제
●기본문제·A (★) 초시
●표준문제·B (★★) 복습
●난제문제·C (★★★) 응용
영어의 독해·발음·문법·작문에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심하고 과학적 분석으로 어떤 난해한 지문이 주당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교수급 읽는 입체적인 교관서.
●이名著를 讀破하시오!
■1,200원 自習書 2,800원
■1,200원 단어숙어1,400원
百萬社 266-8304 서울 종로6가 267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津 敎授 著
구문도해
英語構文論
英語原書를 좀 읽어보겠다는 사람은 構文法 연구가 가장 긴요한 일이다.
英語構文法을 모르고서는 會話·讀解·作文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양장미본 ₩5,600
TOEFL·VOCABULARY & TOEIC이 책들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법부터 연구하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 ?
지상강의서
기초·영어구문론
₩3,400
●아무리 Conversation 이 급해도
●아무리 hearing 이 급해도 영어연구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기초구문론으로부터 !!!
百萬社 266-8304 서울·종로6가 267

안경은 시력검사에 따라
광 신 안 경
▲고도근시 ▲백내장용 ▲신안과
▲가벼운 렌즈
1층(3·1빌딩 광교중간) (724)5559

大學英語
教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 6월3일
(선착순등록마감)
李在玉 TOEFL
아카데미 TOEFL
大學生 TOEFL
時事 TOEFL
Vocabulary22,000(1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釋 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會話 TIME
基礎英語會話 성문綜合英語,
三位一體 綜合英文解釋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英語實力基礎, Reading power
美國語 Hearing GRE, GMAT
文法및讀解성인基礎會話
受驗日語(各種試驗對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東京日本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ダイジエスト,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 語
서반아語, 中國語
院長: 文昌淳
종로2가 종로서적뒤편 734-2442·732-9226
時事英語學院

아르바이트대학생모집
자 격: 영어단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
인 원: 15명 선착순
연락처: 주식회사 백림실업
동양빌딩 903호
(조선호텔 건너편)
전 화: 753-0253. 0254
희망 학생은 85.5.25일까지 재학증명서 지참, 래사바람.

안경은 시력검사에 따라
광 신 안 경
▲고도근시 ▲백내장용
▲가벼운 렌즈
⑦34)5559
신예용안과 1층(3·1빌딩 광교중간)

会計学 実力講座
◎大学実力보강!!
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사·공무원시험
개강 毎月初·우수강사진·합격율 최고!!
부기 1·2·3급·고급회계·회계이론·税法
李東根·李祥根·成完済·金東勳 공인회계사 力講!!
종로 3가 네거리(피카디리 극장쪽) 765-2502·3
창립36년 전통
정평의 실력강의!!
대한경리학원

통역,英·日 Guide
ESCORT 特設
◎外國語 高級化의 지름길
(문법, 독해, 작문, 청취, 회화立体教育)
◎在学中자격취득·아르바이트추천
◎전망밝은 高所得 새人氣 職種
◎國際社会進出의 実現
= 高級通譯要員專門教育機関 =
(大在生 반액장학特典)
交通部·서울市指定
現代觀光研修院
715-0555(남영동금성극장옆) 716-0555

해외유학
유학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학허가서 취득부터 비자 서류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미 국
'85 Fall Term 및 '86 Spring Term
1. 대학, 대학원 입학
2. 경영학 석사 (MBA) 과정
3. 성적우수자, TOEFL, GRE, GMAT등 각종시험 응시자 특별상담
독 일
'85. 10월 학기및 '86, 4월학기
1. 어학증명 소지자의 대학입학
2. 어학초보자의 어학과정 입학
※각 대학 기숙사 예약및주거안내
일 본
1. 대학, 대학원 입학
2. 대학원 연구과정
3. 어학과정 및 전문대 입학
이 태 리
1. Academia: 패션, 회화, 조각, 그래픽
2. Conservatorio: 성악, 작곡, 지휘, 기악
3. Instituto: 건축, 실내장식, 직물디자인
4. 언어대학(Perugia) 1개월내 입학허가서 취득
외국유학에 관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을 환영합니다
삼미유학
1956
전화 734—1957
3320

공 고

산업환경연구소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대학생 모발중 중금속 함량」의 기준을 설정하기위한 활동으로 우리 대학 남녀 학생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Pb, Cd, Zn, Fe, Cu, Mn, Cr, Co 함량을 측정하여 기준치 자료로 삼으려 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분석 결과는 각자에게 알려 드리오니 희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시료 채취법: 각자 머리 뒷부분에서 0.5g~1g의 머리카락을 자른후 봉투에 넣는다(단 머리기름이나 염색을 하였을 때는 세발후)

표 시: 성명, 남녀, 생년월일, 대학, 학과, 학년, 번호, 성장지명.

마 감 일: 1985년 5월 24일

제 출 처: 서울—의약관 655호실
수원—산업환경연구소

분 석 비: 무료

산업환경연구소